

문학은 삶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글 변학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필자는 지난 3년간 독일의 프리츠 페를스 연구소(Fritz-Perls-Institut)에서 문학치료사 자격과정과 슈퍼바이저 자격의 전 과정을 마치고 문학치료사 훈련가로서의 자격증을 얻었다. 하지만 원래 필자가 심리치료를 공부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에서 문예미학과 철학, 미학, 언어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학자가 온 몸과 정서로 이루어진 예술치료의 영역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문학 또한 문학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문학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학비평에 더 열심을 내었다. 하지만 문학창작의 현실은 너무 정직하지 못한 문체 베끼기, 전통의 문체 전수하기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같은 책이 사람마다 다르게 굴절하는 이유

이런 것을 보면서 남과는 다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이론이 있으면 필자는 그냥 수용하지 않는다. 소위 자연과학에서 검증이라고 말하는 이 과정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날카롭다, 예민하다, 예기가 있다, 무섭다, 민망하다, 기발하다, 비판적이다 등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수식어가 항상 필자를 따라 다닌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남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다. 문예비평을 통해서 남의 창의적이고 고유한 그만의 글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많은 책을 읽고 또 면밀히 관찰하여 독서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애써 관찰해보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읽은 텍스트가 필자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고, 이렇게 굴절하는 필자에게 책은 무엇인가, 같은 책이 사람마다 다르게 굴절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점도 가져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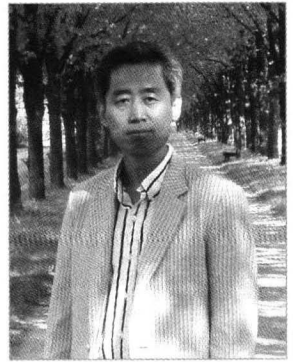
본 연재는 이런 필자의 의문에서 출발한 문제들이다. 문제(problem)란 원래의 어원이 그렇듯 나의 앞에서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괴테의 시를 읽어보자. 무엇이 나를, 다시 말해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다고 촉발하는가?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습시대》(1795)에 나오는 열두 행의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베토벤, 슈만 차이코프스키를 위시해서 60번이나 작곡되었다. 이 노래는 주인공 빌헬름이 민병대의 습격을 당하고 어떤 아마존 같은 여인으로부터 구조된 후, 그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답답해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였다. 빌헬름이 자기의 상처(트라우마)와 동경(결핍)으로 힘들어할 때 들은 이 노래는 집시에 강제로 납치되어 빌헬름에게 팔아 넘겨진 미용이라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소녀가 불렀던 것이다.

〈당신은 아시나요, 레몬 꽃 피는 나라를?〉이라는 노래에서처럼 고향에서 납치되었던 상처와 고향에 대한 애절한 동경이 담긴 이 시는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빌헬름에게 뿐 아니라,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한 필자에게 깊은 치유의 힘을 주었다.

수용적(수동적이 아니라) 문학치료란 이런 시·문학 텍스트에 자신의 깊은 내면을 비춰 반향을 얻는 작업이다. 시·문학 텍스트가 어린 시절, 지금 삶, 미래에 대한 공간을 열어 지각과 관찰, 인식과 의미의 지평을 열어주는 과정을 심미적 과정이라 한다면 문학은 다분히 치유적 힘을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이 괴로움을 알 것이다.
나는 외로이
슬픔에 잠겨서
저 먼 곳
하늘을 바라본다.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사람
저 멀리 있으니
눈앞은 캄캄하고
가슴은 타들어간다.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이 괴로움을 알 것이다.



● 이 글을 쓴 변학수는 1958년에 태어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하고, 독일 아데나워재단 장학생,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철학석사(M.A.)와 문학박사(Dr.phil.)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독일 공인 문학치료사, 독일 프리츠 페를스 연구소(Fritz-Perls-Institut)에서 임상수련(문학치료 슈퍼바이저), 독일문학치료학회 회원, 문학평론가이다. 2003년 국내 최초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설립했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문학치료) 《프로이트 프리즘》(잘못보기)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인문학과 해석학) (공저), 《영화로 문화읽기》(공저) 등이 있다. 《시와 인식》 《기억의 공간》(공역) 《보리스를 위한 파티》 《독일문학은 없다, 릴케-헨시·시작노트》(공역) 등을 번역했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괴테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눈에서 눈물이 핑 돌게 되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고향과 그 고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과 어린 시절 엄마와 할머니, 아버지와 삼촌이 그렇게 싸우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병든 영혼을 만날 수도 없었고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마음속에 미논의 차분한 모습, 미논의 아름다움, 아픔을 쏟아내는 힘이 필자의 모습, 아름다움, 아픔으로 전이되었다. 마치 별을 처음으로 보는 아이의 놀라움으로 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말로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흡사 나를 관찰하는 거울처럼 시작품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나에게 대한, 나를 위한' 계시가 그 작품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통찰' 이고 너를 정서적으로 이해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우리의 한 번만의 삶은 진정한 것

릴케가 <두이노의 비가> 아홉 번째에서 "여기 이 지상에서 한 번 존재하는 것, 우리의 삶,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노래하듯, 이 한 번만의 경험, 즉 우리의 한 번만의 삶은 진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정한 과거나 진정한 삶의 경험과 쉽게 만날 수 없다. 문학이나 예술의 환기하는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잊어버린, 또는 잃어버린 그 과거와 절대 만날 수 없다. 문학과 예술은 기억을 떠올리고 이미지를 환기하는 마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다시 자신의 잊어버린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게 해준다.

우리는 전자를 상징화 과정이라고 하고 후자를 탈상징화 과정이라고 한다. 상징화 과정이란 어렵듯한 전의식, 의식의 경계, 지금-여기에서의 정서를 상징적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음악을 듣고 몸동작으로 표현하거나, 시를 듣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말 한마디 쓰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용적 문학치료는 이러한 상징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방법이다. 물론 치료사가 개입하는 전문적인 치유는 탈상징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징화 된 그림이나 한 마디, 몸의 표현 등에 얽힌 기억과 이미지를 풀어서 표현하게 된다. 상징에 얽힌 자신의 못다 한 이야기, 이를 떼면 상처, 외상, 갈등, 결핍, 장애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삶의 내러티브라고 할까? 스스로 말한 내러티브는 지각하고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주체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주체 스스로가 직접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해석은 인식이 아니라 표현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스스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한 문학은 삶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표현한 것에서, 즉 독서를 통해 인간은 훨씬 더 완전하게 자신과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